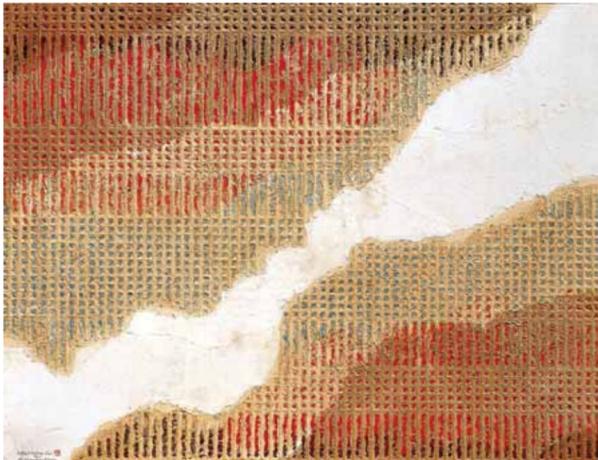


# 남도 추상 미술의 역사를 만나다



김종일 작 '순수'



최종섭 작 '무제'

## '에쁘끄' 창립 50주년 기념전... 22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국내 3대 비구상 미술그룹  
고 최종섭, 김종일·우제길 등  
중견·청년작가 50여명 참여  
1회 팸플릿 등 자료도 전시

(사)한국미술사가협회가 발행한 '2016 아트프라이즈'에 따르면 지난해 낙찰 총액 상위 5명 중 4명이 추상화가(김환기·정승화·이우환·박서보)들이다. 이우환 등 한국 추상화가들은 국경을 넘어 전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현재 추상화 열풍이 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 중 대표적인 단체가 남도 작가들로 구성된 '(사)에쁘끄'(epoque·1964년 창립)다. 프랑스어로 '시대'를 의미하는 에쁘끄는 서울 '오리진'(1958), 부산 '학동인'(1963)과 함께 국내 3대 비구상 미술그룹으로 꼽힌다. 에쁘끄가 50주년을 맞아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미술단체 '1964-2016 에쁘끄 50년을 넘어서다'전을 2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산파 역할을 한 강용운·양수아 선생을 비롯해 고(故) 최종섭, 고(故) 이규환, 김종일, 우제길, 최재창 등 초창기 회원부터 청년 회원까지 약 50명 작품을 선보인다. 회화, 조각, 사진, 설치미술,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형태 작품 100여점과 함께 아카이브 자료도 함께 전시돼 한국 추상미술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한국 추상화는 신안 출신 김환기(1913~1974)로부터 시작됐다는 게 정설이다. 이후 강용운(1921~2006), 양수아(1920~1972)에 의해 남도 모더니즘 추상운동이 전개된다. 남도추상회화는 구상회화와의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성장했다. 대표적인 게 강용운과 오지호가 1960년 옛 전남 일보(현 광주일보) 지면상에서 벌인 '지상논쟁-

구상, 비구상 미술론'이다. 이 둘은 약 3개월간 30회에 걸쳐 구상과 비구상 중요·우월성을 주장하며 격론을 펼쳤고 광주화단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풍토 속에서 강용운·양수아가 광주사범학교에 재직하며 배출한 김용복, 이세정, 조규만, 박상섭, 김종일, 명창준, 최종섭, 임태정 8명이 에쁘끄를 창립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원들의 초기 작품과 현재 작품을 동시에 선보여 추상미술 흐름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다. 창립멤버이자 지난 2004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할 때 초대 이사장을 맡기도 한 김종일 작가는 단색화 '블랙'(1977) 시리즈를 출품했다. 2000년대 이후 작업하고 있는 채색화 '순수' 시리즈와는 전혀 다른 어두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최종섭은 한지를 이용한 모노크롬 회화(단색화)를 통해 남도 정신을 역설했다. 이번 전시에서 볼 수 있는 '무제'(1976)는 정렬된 네모 패턴을 통해 물질과 정신 관계를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우제길 작가는 '붉은띠의 추상'(1967)을 선보인다. 최근작 'Light'와 같이 채도가 높은 색상을 통해 빛을 표현했다.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며 공간과 시간에 대한 생각을 넓혀가는 작가 정신이 전해진다. 원년 멤버 초기 작품들은 당시 시대상을 반영해 무겁게 느껴지는데 반해 최근작들은 고차원적인 정신세계, 자연에 대한 추구가 엿보인다. 미술관 1층 아카이브 전시장소에서는 회원들이 펴낸 논문, 전시 자료, 팬던트 등 기념품 등 다양한 자료들이 진열됐다. 수기로 작성한 회칙에서는 전남과 민족미술 발전에 공헌하겠다는 청년 작가들의 결의를 엿볼 수 있다. 또 1965년 12월30일 제1회 정기전 팸플릿, 10주년 팸플릿을 비롯해 지금은 원로 대우를 받는 회원들의 청년 시절 사진을 선보인다. 근엄한 스승 강용운과 전진난민하게 웃고 있는 제자 최종섭 등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613-539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박종석 작 '무등산 10경'

## '영원한 청춘의 도시, 광주-아, 무등이여' 전 무등현대미술관 18일~8월 10일...작가 9명 참여

무등현대미술관이 '영원한 청춘의 도시, 광주-아, 무등이여'전을 18일부터 8월1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을 맞아 무등과 광주 정신을 형상화한 회화, 조각, 도자, 설치 등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김성걸, 김영태, 김지준, 박종석, 송필용, 윤남용, 정선휘, 최희원, 하루.K 등 작가 9명이 참여한다. 전시 제목은 김준태 시인이 1980년 6월2일 광주일보 전신 옛 전남매일신문에 기고한 시 '아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에서 따왔다. 박종석 작가는 일제시대 민중교육가 겸 송태희 선생이 1921년 무등산을 오르곤 쓴 '무등산 절경시'를 화폭에 옮긴 길이 5m 대형작품 '무등산 10경'을 출품했다.

윤남용 작가의 '바람 그리고 놀다'는 1980년 5월 금남로에 쏟아져 나온 광주 시민들을 표현했다. 불의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묘사하고 있지만 생명세계를 지키고자 하던 염원도 느껴지는 작품이다. 그밖에 송필용 작가는 역사 흐름을 묘사한 '흐름' 시리즈, 김영태 사진작가는 이미지를 중첩시켜 옛 기억을 상기시키는 '시간의 그림자'를 선보인다. 한편 18일 오후 4시 열리는 전시 개막 행사에서는 도예가 김지준씨가 '풍화 무등-너덜길'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6월10일에는 '김준태 시인과 미술인들의 만남'을 주제로 '문학·미술·음악인들의 밤'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62-223-667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5월 광주 꽃이 되리...' 포크가수 박강수 공연

### 20일 문화전당 앞 보헤미안

삶을 이야기하는 노랫말에 잔잔한 멜로디, 감성어린 목소리로 사랑받는 포크가수 박강수가 광주 공연 '5월 광주 꽃이 되리...'를 개최한다. 20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 보헤미안. 지난 2001년 '부족한 사랑'이 실린 1집 'SOON'으로 데뷔한 그녀는 다양한 음반과 함께 시 노래집 '시가 되고 노래가 되어'를 발매했으며 영화 '도가니' 주인공 정각장에인들 자립기금 마련 자선 음반 '말하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를 내놓았다. 지난해 7집 정규 음반 '나비'와 '동네 한바퀴'를 내놓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음반 '독백'을 발매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해 앙코르 무대를 포함한 차례 광주 공연은 포크음악 팬들의 참여로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7집 수록곡 '나비' '춘풍', '동네한바퀴' 등을 비롯해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문의 02-02.322.424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1회 정기전 팸플릿



에쁘끄 초창기 멤버들.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임태정, 최종섭, 박상섭, 이세정, 김종일, 명창준, 조규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 400여점 전시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 60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전국대회

2016. 4. 20(수) ~ 5. 26(목)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광주패밀리랜드 및 우치동물원

신청기간: 2016년 5월 16일(월) ~ 5월 18일(수)

미술·작문 부문

- 참가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일부부문 성인
- 경연기간: 4월 20일(수) ~ 5월 26일(목)
- 참가부문: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작문(자세한 내용은 대회요강 참조)
- 접수방법: 방문신청: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062,220,0541) / 평 일: 09:00~18:00 (토·일요일 제외)  
우편신청: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16층 호남예술제 담당자 앞(우61482)  
인터넷신청: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경연일정: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확정된 일정 및 장소는 2016년 4월 18일(월) 호남예술제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 시상: 우수학교상·우수지도상  
국회(의장상(예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예정)  
개인-최고상·금상·은상·동상·정려상  
단체-최고상·금상·은상·동상
- 문의: 062,220,0541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http://art.kjmedia.co.kr